

내게 주어진 사명

5년 전 의예과 2학년 때 참석했던 한국누가회
수련회에서 골수기증 신청을 받고 있었습니다.

남은 이들이 참여했고 저 또한 즐겁게 참여했습니다. 그리곤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난 본과 2학년 때 첫 번째 연락이 왔습니다. 환자는 아기였고 전 부모님의 망설임을 설득하고 모든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아기의 상태가 좋지 못했고 기증할 기회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또 2년이 지나 본과 4학년이 되었습니다. 의사국가고시를 한참 준비하고 있는 때에 전화가 왔습니다. 일치하는 분이 있다고... 너무 놀랐습니다. 2년 전, 주고 싶었으나 줄 수 없었던 때가 기억났습니다. 저에게도 중요한 시기였기에 부모님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고, 부끄럽지만 제 맘속에 있는 약간의 망설임이 제 발목을 잡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2년 전 아픔 가운데 있던 아기를 기억하며 기꺼이 기증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3박4일의 입원기간동안 새벽5시마다 설친 잠을 깨고 주사바늘에 찔리면서... 문안을 온 친구들이 떠나가고 난 후에 혼자 있으면서... 외로움과 고통을 생각하였습니다. 골수를 받게 될 환자분은 수없이 많은 검사들로 인하여 잠 한 번 제대로 못 잤을 텐데... 무균실에 있어서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의 얼굴을 마음껏 볼 수도 없을 텐데... 감히 환자분의 아픔을 아주 조금이라도 느끼는 시간이었고 그런 감정을 가졌던 제 자신이 참 부끄러울 뿐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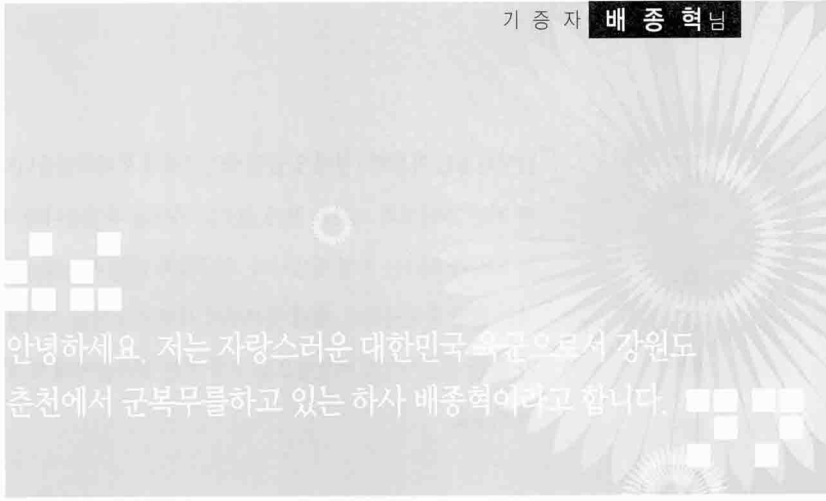


감사하게도 이듬해 1월에 있었던 국가고시에 합격하였습니다. 아직 초보의사이지만 지난 3박4일의 시간은 제게 새로운 사명을 주었습니다. 환자의 아픔을 함께하는 의사가 되라는 사명 말입니다. 친구들이 가끔 우스갯소리로 말합니다. 제 유전자는 흔한 유전자라고, 함께 웃으면서 새로운 소망을 가져봅니다. 정말 제 유전자가 흔한 유전자여서 백혈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에게 또 한 번 희망을 나누었으면 하고요.

이름 모를 환자분, 저의 적은 혈액으로 인하여 당신의 삶이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도 건강히 지내시고 계시다고 코디네이터님께 소식을 들었습니다. 멀리서 그리고 가까이서 늘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어느 대한민국 육군 부사관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육군으로서 장원도
춘천에서 군복무를하고 있는 하사 배종환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즐겁게 일하고 퇴근을 하던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홍보지에 게재될 사람으로 제가 채택되었으니 간단히 글을 보내 주시면 안되겠냐고 물으시더군요. 그걸 받는 순간 고마운 마음과 동시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더군요. 저 말고도 더 좋은 분과 더 많은 선행을 행하신 분이 있는데 염치없게도 제가 글을 보내도 될까?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조혈모세포기증에 대해 알리기 위해 작은 용기를 내어 이렇게 한자 한자 적어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TV를 보는데 그곳에선 '백혈병'을 주제로 다룬 다큐멘터리가 나오더군요. '백혈병'을 앓고 계신 환자분들의 고통, 가족들의 슬픔, 강인한 정신을 갖고 계신 환자분들..... 그분들은 고통 속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를 힘차게 보람차게 지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이를 통해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아픈 곳 하나 없고 건강한 몸을 갖고 있어 행복하구나...' '그래서 더욱 더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하면서 하루하루 지치고 힘이 들고 쓰러질 것 같아도 그때를 떠올리며 힘차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후 군에 입대하여 현혈을 하는데 그곳에서 눈에 띄는 문구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그 문구는 "조혈모세포기증에 필요한 혈액검사에 동의하시겠습니까?"라는 문구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무엇인지 그곳에 계신 분들께 여쭙보았습니다. 그곳에서 하시는 말씀이 '백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조혈모세포를 기증하겠다는 동의라고 하시더군요. 그 순간 고등학교 때 보았던 다큐멘터리가 떠오름과 동시에 생각할 것 없이 동의란에 서명을 했습니다.

다. 그리고 차후에 나의 골수가 일치하신 분이 계신다면 기증하리라 다짐하고 또 다 짐했습니다. 동의를 하고 2개월 뒤에 협회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일치하시는 분이 계셔서 정확한 검사를 해보아야 하니 혈액검사 가능하시냐고... 그래서 당장 한다고 하고 싶었으나 제가 군복무를 하고 있기에 함부로 답을 할 수 없어서 부대에 확인해 보았습니다. 육군본부까지 허락을 득한 후에 가능하다고 하시더군요. 우리 육군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사명이 있으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육군이기에, 저는 그것을 지켜야 할 대한민국 육군 부사관이기에... 대한민국 육군하사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실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천을 하기까지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으나 육군에서 허락을 해주고 용기를 주어 조혈모세포기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를 알고 있는 친한 전우들이 저에게 묻더군요. "아는 사람이나?" 저는 대답합니다. "모르는 분입니다"라고 그럴 때마다 의아해 하십니다. 그러면서 왜냐냐고...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혈모세포를 기증받으시는 분이 아주머니라고 들었는데 만약 자신의 어머니께서 '백혈병'으로 오랜 기간 동안 투병생활을 하신다면 어떨 것 같냐고... 어머니의 웃음과 따뜻한 밥 한 끼 해주지 못하는 어머니의 마음과 자식들의 슬픔을 생각해 보았냐고... 아주머니께서 건강한 모습으로 따뜻한 밥 한 끼를 만드시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그 후 확인검사와 건강검진을 마치고 조혈모세포기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었던 건 채취 후에 의사선생님께서 제 조혈모세포가 아주 건강하고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아주머니께서 빨리 나오실 수 있겠다는 생각에 너무 기뻛고 보람된 일을 했구나 하며 스스로를 감격스러워 했습니다.

저에게 있어 조혈모세포기증은 제 2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동기인 것 같습니다. 그분에게 행복을 줄 수 있어서 저는 기쁨을 얻게 되었고 '그분과 저는 한마음으로 이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새기며 지치고 힘이 들 때마다 그 마음을 떠올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한국조혈모세포은행회분들, 그리고 담당 코디분이 한 분이었는데 저는 유난히 많은 코디네이터님들께서 채취를 하기까지 많이 도와주셨으며 저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군에서 이러한 좋은 기회를 허락해주셔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많은 조혈모세포기증희망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세상은 아름다움과 훈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징검다리 클럽 여러분들... 우리 모두 사람을 만나며 그들을 사랑하며 원대한 꿈을 펼쳐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만 분의 1의 행운

2001년, 어느덧 7년이란 세월이 지나셨지
그 때의 기억은 아련합니다.

학교로 헌혈버스가 찾아왔고 조혈모세포기증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친구랑 얼떨결에 조혈모세포기증에 동의했고 공중파 방송사에서도 취재를 나와서 9시 뉴스에도 나오는 영광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어언 7년의 세월이 지나고 까맣게 잊고 있던 중 작년 여름에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 제가 연락을 접한 것은 놀랍게도 모 인터넷 사이트의 쪽지로부터였습니다. 쪽지의 내용은 김진명님과 유전자형이 일치하는 환자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의 어떤 코디네이터님이 보낸 것이었는데 사실 처음에는 쪽지인 연유로 의심을 하였습니다. 저는 쪽지를 타고 홈페이지를 찾아가서 방명록에 진위여부를 물었습니다. 방명록을 남긴지 하루 만에 코디네이터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진짜로 기증자를 찾고 있다는 말씀에 계속 되물어 보았던 것이 생각납니다. 7년 만에 저와 유전자형이 일치하는 환자가 나타났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환자가 어린아이라는 말에 많은 연민을 느꼈고 조혈모세포가 맞는 경우는 2만 명 중의 한 명 꼴이라는 놀라운 사실도 들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말씀 드렸더니 아버지는 좋은 일한다고 흔쾌히 승낙해 주셨지만 어머니와 외할머니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승낙해주셨고 그 사실을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에 통보하였습니다.



한번은 제 친구에게 조혈모세포를 기증한다고 말하니 “너 미쳤니?”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취업 준비 때문에 바빴던 지라 친구는 저를 걱정하느라 하는 말이었습니
다. 그 때 저는 사람들이 왜 이리 과민반응을 하나 생각하였습니다. 이유는 어머니
나 제 친구나 조혈모세포기증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혈
모세포를 기증하면 골수(?)를 뚫어서 척추(?)에서 연골 빼듯이 골수를 빼는 수술로
써 반신불구가 될 수 있다는 선입견이었습니다.

지금 이 수기를 빌어 기증자로서 말씀 드립니다. 조혈모세포는 도가니탕의 연골 같
은 물렁물렁한 것이 아니라 피를 만드는 어머니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
까지 수술사고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수술하고 처음은 엉덩이를 축구선수한테 건
어 차인 것처럼 빠근하지만 하루만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 다음날부터 가방 매고
잘 돌아다녔습니다. 또한 저는 환자 측의 요청으로 엉덩이뼈에서 조혈모세포를 채
취하는 방법으로 기증하였지만 요즘은 양팔에 주사바늘을 꼽고 현혈처럼 채취하는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군요. 안심하십시오.

2007년 겨울 취업준비다 기말고사다 바쁜 나날을 보냈는데 조혈모세포기증으로 2
박 3일 동안에 병원 1인실에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오랜만에 푹 쉬었습니다. 다
시 한번 건강의 소중함도 느꼈고요. 가족과 친구들의 문안과 격려로 행복했습니다.

비록 제 조혈모세포를 기증받은 아이를 직접 볼 수 없었지만 한국조혈모세포은행
협회를 통해 간간히 부작용 없이 건강하다는 소식에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또한
생명을 구했다는 자부심은 인생을 더 적극적이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
고 있습니다.

지금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2만분의 1의 행운을 누리게 해주기 위하여 한 달에 한
번 대학로에서 기증자모집행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2만분의 1의 행
운을 놓치지 마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